

< 차 례 >

I. 일반논문 초록	1
1.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 분석	1
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행복 발달궤적과 시점별 예측효과 검증	2
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군집유형과 생활스트레스 및 학습전략 차이	3
4. 학습동기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화궤적: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여	4
5. 출신 대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비교를 중심으로	4
6. 지위획득모형을 통한 마이스터고 졸업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분석	5
7. 상향이동의 부산물: 세대간 소득을 유지한 사람과 상향이동을 성취한 사람의 차이에 관하여	6
8.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분석 및 재정 변인의 영향력 탐색	6
9.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교육과 활동의 예측효과 및 대학생활만족도	7
10. 대학의 학생지원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업중단 간의 관계 분석	8
II. 대학원생 우수논문 초록	9
1. K-means 군집분석 및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취업선호도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9
2. 대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 예측변수 탐색: 고등학교 시기의 변인을 중심으로	10
3.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유형과 관련 요인 분석	11
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주요 설명변인 탐색 및 취업 성과 예측: 다층 Elastic Net 적용 ... 12	
5. 대학생의 대학교육만족도에 관한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여	13

1.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 분석

곽수란(고구려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1차, 2차 그리고 4차 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사회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방향은 고등학교 시기의 가정배경과 학업 활동(진로성숙도, 학업성취) 그리고 청년기의 경제상황, 사회적관계, 개인역량 발휘 정도가 기회평등 인식과 연계되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기회평등 인식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년기 현재 시점의 경제상황과 개인역량 발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한 청년층의 기회평등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기회평등, 청년층, 한국교육고용패널Ⅱ

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행복 발달궤적과 시점별 예측효과 검증

장희선(혜전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복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예측요인을 시점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2학년 학생(1차)부터 4차시점까지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응답한 8,36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성장혼합모형(GMM) 분석을 하였으며, 3차시점부터 대학생 5,011명(3차), 4,573명(4차)을 대상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복 발달궤적은 ‘행복 저수준 저감집단’,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 ‘행복 저수준 상승집단’ 등 4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예측요인 검증결과, 자아효능감, 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고2, 고3)이 높을수록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고민(고2)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었다. 셋째, 대학생생활 영역에서 학교자부심 같은 학교만족도, 교육과정, 상담만족도는 긍정적 발달패턴으로 속할 확률을 높이지만, 비교과프로그램은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특히 상담만족도는 저수준 학생의 행복을 상승시키는 발달패턴에 속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성장에 따른 행복의 발달궤적의 특성과 예측요인을 검증하고, 시점별 개인, 가정, 학교요인의 중단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KEEP, 행복 발달궤적, 성장혼합모형, 고등학생, 예측효과

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군집유형과 생활스트레스 및 학습전략 차이

한애리(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요약

최근 4차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고, 이에 개별 학생들의 탄력성이 중요한 능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의 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그 군집 유형에 따른 생활스트레스와 학습전략의 차이를 검증하여 비대면화, 개인화, 개별화 교육서비스에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KEEP) 4차년도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 응답한 대학생 1,255명을 대상으로 K-means 군집분석, F-검증 및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긍정적 태도 중심으로 다섯 가지 군집(1차 모델)으로 나누었으며, 그 군집별로 생활스트레스와 학습전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호기심과 긍정적 태도에 스트레스와 학습전략 두 변인을 추가하여 더 균등한 다섯 가지 군집(2차 모델)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분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수업을 제공함에 있어 각 학습자의 유형별로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학습전략, 군집분석

4. 학습동기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화궤적: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여

이누리(한양대학교)

박세현(한양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가 시작되는 시기의 자기효능감의 변화궤적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II) 1, 2, 3,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SPSS(27.0), Amos(21.0) 프로그램으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행접근목표지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청소년기가 지나 일정 시기까지는 더 강화된다. 셋째,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조절동기가 청소년시기에 자기효능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교육시스템의 한계와 보완해야 할 방향성에서 논의하여 시사점과 한계점을 남겼다.

5. 출신 대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비교를 중심으로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임슬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 고등학생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졸업생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첫 직장에서의 임금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편의를 조정하기 위해 성향점수짜깁기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상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인적자본 수준을 통제하고자 수능 등급을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칭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의 임금효과 및 수도권 직장 취업의 임금효과 등 거의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졸업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출신 대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부 인정한 일부 이론들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6. 지위획득모형을 통한 마이스터고 졸업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분석

박경희(우석대학교)

유진영(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KEEP2)’의 4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직업경로가 유사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위획득모형 관련 논의들에서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이자 학교효과의 선행요인으로 밝혀진 학교소재지, 부모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을 경향점수매칭 방식으로 통제한 후, 집단 간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객관적 이행성과와 관련하여 부모효과 및 학교소재지를 통제하여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취업률, 선호직장 및 직업형태, 임금, 복지후생 영역에 있어 더 나은 조건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고교에서 학습한 전공과 일치된 업무에의 만족을 중심으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높은 직장생활만족을 유지하였다. 또한 입직 초기에 있어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학력 일치도, 임금,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이 더 높았으며, 삶의 행복 또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효과와 함께 개인특성에 해당하는 학생의 전문교과 성취가 상호작용하면 노동시장 이행성과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문교과 성취수준이 높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고교생활만족이 높았으며, 직장생활만족은 학생 개인 특성보다는 학교유형이 유의한 영향임을 확인하였다.

7. 상향이동의 부산물 세대간 소득을 유지한 사람과 상향이동을 성취한 사람의 차이에 관하여

문상균(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 간 상향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소득이 유사한 수준일 경우 세대 간 상향이동을 경험한 집단이 세대 간 상향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향이동을 경험한 집단은 교제 경험과 수면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사용 혹은 특정한 경험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식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 간 상향이동을 경험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을 낮게 판단하거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상향이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가, 교제 활동, 수면 시간 등에 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8.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분석 및 재정 변인의 영향력 탐색

구슬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주혜(서강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4차 자료를 활용하여 인지진단모형 중 일반화 모형인 G-DINA 모형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재정적 변인의 영향력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학업 적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적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기술통계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둘째, 대학생활적응 척도 프로파일 분석 결과, ‘학업 적응’과 ‘대학 환경 적응’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본 연구에 포함된 22개 문항 중 문항의 진단성이 낮아 추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문항이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적 변인 중 장학금 수혜여부, 대학 평균 등록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여부는 대학생활적응 척도 내에 세 가지 하위 요인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하위 요인과 재정적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교육과 활동의 예측효과 및 대학생활만족도

장희선(혜전대학교)

장선영(목포해양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의 고등학교 2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동기 프로파일의 잠재집단 유형을 파악하고, 진로교육과 활동의 예측효과를 확인하고, 대학교 1, 2학년 시점에서 대학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과 잠재프로파일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의 학습동기 잠재프로파일 결과 잠재집단은 ‘저수준 자율동기’, ‘고수준 자율동기’, ‘고동기’, ‘저동기’, ‘평균동기’의 5개의 집단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학습동기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및 활동으로 진로상담, 학과체험은 ‘저동기형’보다 다른 동기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수준 자율동기’ 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고, 직업실무체험은 ‘저동기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부적인 예측요인이었다. 셋째, 대학생활만족도에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자율동기형’이 다른 동기 유형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고동기형’은 ‘자율동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저동기형’과 ‘평균동기형’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진로교육과 활동 지원 및 향후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에 시사하는 바를 제공할 것이다.

10. 대학의 학생지원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업중단 간의 관계 분석

김영식(경남대학교)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II 4차년도 자료에 대하여 로짓 모형과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대학의 학생지원 노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와 이들의 대학만족도 및 학업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의 학생지원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학교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은 물론, 심리상담 및 진로·취창업 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대학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대학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학생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학의 학생지원 노력 중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 공간 혁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와 모형 상의 제약으로 대학의 학생 지원 노력이 이들의 대학만족 및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인 추정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온 대학의 학생 지원 노력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대학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1. K-means 군집분석 및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취업선호도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최진수(충남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취업선호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고, 각 유형에 따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결과 각각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취업선호도에 대해서는 취업선호도 ‘하위’, ‘상위’, ‘중간’그룹으로 유형화되었고, 상대적 취업선호도 특성에 따라서는 ‘미래전망 중시’, ‘근무환경 중시’, ‘사회적 인정 중시’그룹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취업선호도와 상대적 취업선호도 유형화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 ‘여가활동 빈도’, ‘타문화권과의 교류’, ‘여가시간-휴일’,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 ‘월평균 생활비’, ‘독서 선호도’, ‘한달 용돈 액수’, ‘여가시간-평일’, ‘삶의 상태’, ‘월평균 본인 소득’, ‘행복도’, ‘수면 시간’, ‘아침 식사 여부’, ‘동거인 수’, ‘아버지의 최종학력’, ‘월평균 저축액’, ‘건강 상태’, ‘자산액수’,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선호도 및 상대적 취업선호도에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과 건강과 관련된 요인, 여가활동과 경제적 특성, 가정환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교육이력과 직업훈련 경험에 대해서는 취업선호도 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비교적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K-means와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함으로써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고 집단 분류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취업선호도 유형에 따라 적합한 취업상담과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 예측변수 탐색: 고등학교 시기의 변인을 중심으로

박신영(충남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을 예측하는 고등학교 시기의 개인적·환경적·맥락적 변수를 탐색하고, 주요 예측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교육고용패널Ⅱ 1차년도(고2), 2차년도(고3), 4차년도(대2) 7,984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두 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력이 우수하게 나타난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예측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을 예측하는 주요변수로 학교생활(8개),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15개), 여가생활(1개), 일반적 특성(2개) 영역에 걸쳐 26개의 고등학교 시기의 변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체육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미래 직업을 결정한 학생들이 미결정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을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3.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유형과 관련 요인 분석

김정은(전남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대학 차원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에 따라 잠재계층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각 집단유형(계층)별 특징과 유형별로 학생 개인 차원의 진로준비활동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패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활동이 몇 개의 최적화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유형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학교/전공계열 관련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과/학교/삶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의 4차년도(2019) 조사 데이터인 대학생 8,516명(남학생 4,465명(52.4%), 여학생 4,051명(47.6%))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참가형(Engaged type, n=267, 5.9%)’, ‘기본형(basic-participation type, n=1,514, 33.3%)’, ‘저조형(Disengaged type, n=2,766, 60.8%)’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기존 분석의 문제점인 계층변화와 분류오류 미반영 문제를 보완한 3-STEP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유형 분류 예측변인으로, 개인 특성에서는 학점과 조별 전공과제/공부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성별과 개별 전공과제/공부시간의 영향은 없었다. 학교/전공계열 관련 변인에서는 대학유형 중 2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전공계열에서는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의보건계열, 예체능계열의 학생이 영향을 나타냈고, 진로/직업탐색 과목 수강의 경우 거의 모든 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실제 학생 차원의 진로준비활동 여부와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9개 진로준비활동 하위 영역 중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방문부탁, 면접훈련, 외모관리 경험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만족도의 경우 학과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집단별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진로준비행동, 학생 만족도, 3-STEP방식, 잠재계층분석

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주요 설명변인 탐색 및 취업 성과 예측: 다층 Elastic Net 적용

박소영(충남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 1차와 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주요 설명변인을 탐색하고,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 유형에 따라 졸업 후의 취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층자료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 Elastic net 모형을 적용하여 주요 설명변인을 탐색하였으며, BCH 방법을 통해 진로성숙도 유형에 따른 취업 성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분석에 포함된 436개 설명변인 중 10회 반복 분석에서 모두 선택된 주요 설명변인은 31개였으며, 학생관련 변수만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주요 설명변인은 개인특성 변인, 진로/직업관련 변인, 학업관련 변인, 환경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낮은 진로성숙도 집단’과 ‘높은 진로성숙도 집단’ 2개로 구분되었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높은 진로성숙도 집단’에 속하는 것이 ‘낮은 진로성숙도 집단’에 속하는 것에 비해 취업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 발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5. 대학생의 대학교육만족도에 관한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여

백상현(고려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대학교육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하위요소에 따른 유형을 파악하고 개인 특성, 학습경험, 대학특성 변인이 대학교육만족도 유형에 주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중학생 패널 7차년도(2010년)에서 9차년도(2012년) 데이터 중 451명의 대학생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대학교육만족도 하위요소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대학교육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시설지원 영역에서는 중수준 유지형, 저수준 유지형의 2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교수상담, 교수-학습지원 영역에서는 중수준 유지형, 상승형, 하락형의 3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영향 요인을 검증한 결과, 개인 특성 변인에서 성별, 전공계열, 자아존중감이, 학습 경험 변인에서는 복수전공 여부, 수업태도가 대학교육만족도 하위영역의 유형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학교육만족도, 대학생, 성장혼합모형, 종단연구